

#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3월 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복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68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우리 교회의 평신도교육 과정을 통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 한 예지 -

저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을 때, 홀로 조용히 성경을 펼쳐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따르기 쉬운 젊은 날에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고 성경대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4년에, 학업으로 몹시 바쁜 중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 주일이 아닌 평일에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난해하게 생각되는 성경은 지나치고 스스로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즐겨 읽고 묵상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약성경보다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말씀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청년봉사선교회에 입회한 후 우리 교회의 평신도 성경학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기뻐했는데, 시간표를 보니 제가 섬기는 성전에서는 평일 수업만 있고 주일에는 안양성전으로 가서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이듬해에 제가 섬기는 성전에서 토요일에도 평신도 성경학교 강의를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성경학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들으며 성경말씀에 대하여 점차 바른 이해와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강의와 교육을 통해 믿음이 한층 크고 깊어지게 되어 시간 시간이 매우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교에 이은 성경대학 과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생활 때문에 강의를 들을 수 없어 안양성전의 주일반 성경대학 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기간은 성경학교 과정보다 짧았지만 대신 더욱 심도 있는 성경 강의와 함께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과목을 추가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평신도 성경대학 과정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날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과 현상을 성경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평신도 성경학교와 성경대학의 사이버교육 과정이 시작되어 저는 이전에 강의실에서 공부했던 것을 집에서 다시 공부하고 또 그때 못 들었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습니다.

그 후 평신도 성경대학원 수업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학원 개강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과 국가고시 준비, 졸업 전 취업 등으로 인해 저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대학원이 다시 개강하면서 저는 대학원에서 학생 임원을 맡아 봉사하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둘 결심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회사 대표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므로 업무 시간을 조정하여 주일 외에 수요일에도 교회

에 와서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과정의 성경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열거하자면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신자를 미혹하며 복음을 혼잡케 하는 각종 이단 사설이 난무한 이 때에 체계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쌓고 훈련을 받으면서, 평신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더욱 신령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성경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저의 신앙생활을 성찰하면서 새롭게 결단한 시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 시간, 선교의 열정이 더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이 있는 광명시에서 안양성전으로 공부하러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성도로서 겪는 불편과 부당한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한동안 교회 봉사를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대학원을 통하여 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회학교 부서를 섬기면서, 교회학교 비전스쿨 청년멘토를 하면서, 청년봉사선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저의 길을 인도하실지 부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날 방향 없는 세대와 거짓 진리로 혼돈스러운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들로 55(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1권 (제6단원 :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38과)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일꾼

- 본문 : 마태복음 16:24-28
- 요절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 찬송 : 359장(새찬송가 325장), 456장(새찬송가 43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답변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단순히 성인(聖人) 정도로 알아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 대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흠족해하시며 베드로에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한편 이 신앙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으로써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회에 장차 당하게 될 그리스도의 수난을 제자들에게 예고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만류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1.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린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지 제자들이 영광 받을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들에 의하여 주님의 복음이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었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면 자연히 성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악된 고집과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불신자들의 죄악된 심령을 회개로 변화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때로 이런 마음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만 자랑함으로써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십자가란 형벌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같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삼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뎌므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님 외의 그 누구라도 질 수 없는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주셔서 성도들이 이를 기쁘게 짐으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기 위하여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의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며 또 감당할만한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거부치 않고 제대로 찾아서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그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불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말은 구역이 원만하고 은혜롭게 성장할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3. 주님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사생관(死生觀)에 대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난관이 발생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보여 주신 행동의 본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각오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섬기는 단계를 뛰어 넘어 예수님께 깊은 헌신을 바칠 각오를 하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를 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숨까지 바치는 헌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가능케 됩니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6~8)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오로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결단으로 기쁘게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성도를 도와주시며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울진,전주호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김포,장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리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